

'영화로운 가치' 기부문화 확산 도모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이래 최초 후원회 발족... 4월 21일까지 회원 모집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로운 가치'를 도모하는 후원회를 발족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영화제 개최 이래 최초로 발족된 후원회는 운영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사회 공헌 노력 및 기부문화 확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영화제는 지역 내 문화·예술 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 조성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또한 후원회 모금액의 일부는 3분기 내 지역 NGO 단체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후원회는 오는 4월 21일까지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100만 원 이상 금액을 후원하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개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회원들은 올해 영화제 기간 중 열리는 리셉션 및 후원의 밤 행사에 초청되며,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후원회 가입 기업 간 네트워킹 행사에도 참석할 수 있다.

전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 공헌에 뜻을 모아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후원회를 통해 전주국제영화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



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로운 가치'를 도모하는 후원회를 발족했다.

도록 힘쓰겠으며, 릴레이 후원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이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엘리스' 공연

정읍시예술회관에서 30일 선착순 무료 관람

정읍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읍시예술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판타스틱 엘리스' 공연을 선보인다. '판타스틱 엘리스'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지역을 연고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공연예술단체와 협업을 통해 공연콘텐츠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공연으로 준비했다.

이번 공연은 '이상한 나라 엘리스'를 각색해 제작된 어린이 댄스 뮤지컬 공연이다. 엘리스가 시계를 보며 말을 하는 신비한 토끼에 홀려 이상한 나라 엘리스 동화책 속에 빠지는 설정을 통해 극이 시작된다.

그 곳에서 엘리스는 동중한 아광고양이, 파티에 중독된 모자장수, 사나운 괴짜 빨간 여왕, 여왕을 뒤따르는 카드병정 일당들을 만나 미묘한 이빨길 속에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이야기를 꾸려 나간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화려한 무대미술이 어우러져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고, 판타지 세상을 춤으로 표현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킬 계획이다.

공연은 50분간 진행되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정읍시민이라면 누구나 선착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마련해 시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문화예술 창업지원 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전주문화재단, 4월 13일까지 접수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문화예술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 오는 4월 13일까지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 스타트업의 성장방식을 이해하고, 창업을 위해 필요한 필수 역량을 교육하는 초기 문화예술 창업교육 및 멘토링 사업이다.

올해는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의 가치가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창업자의 특성을 고려, 사전 멘토링과 예비교육을 추가 구성해 비즈니스의 방향성과 구체화를 위한 교육을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참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

영해 예비, 기본, 심화, 멘토링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재단에 따르면 문화예술 창업지원 사업에 지원한 모든 신청자는 8시간의 예비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우수 교육생에게는 최대 5백만 원의 프로젝트 운영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예술가들의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 가능한 창업 아이디어가 전주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창업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오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과정과 지원내용, 교육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미래전략팀(063-211-9276)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문화예술 창업에 가까워지는 시간

2023 문화예술 창업지원사업

2023.4.13(목)까지

문화예술 창업 예비교육 8시간 재능

400-718-1111(주) 문화재단

문의: 063-211-9276

www.jejuartcenter.com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kbs 봄꽃음악회 개최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새봄을 맞아 오는 24~25일 오후 6시 30분부터 9시까지 2일간 요천 둔치 승월교 아래 특설무대에서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kbs 봄꽃음악회를 개최하며 2023년 축제의 서문을 연다.

공연 무대가 마련될 요천둔치는 벚꽃길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 해마다 이맘 때면 많은 상춘객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았던 남원시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민선8기 남원시의 희망을 봄꽃과 함께 전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kbs 전북방송을 통해 직접 행사장에 찾아오지 못한 시민과 전북도민에게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24일 펼쳐질 봄꽃음악회는 이도진, 박상철, 고유진, 요요미, 진이랑, 박민규, 권재숙이 출연해

봄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예정이며, 둘째날인 25일 히든싱어 콘서트는 JTBC 히든싱어에 출연해 화제가 된 실력자들의 무대로 박민규(환희연, 왕중왕전 우승), 조현민(임창정편), 김정훈(이문세 편), 오예중(장윤정 편), mc호조가 출연해 즐거운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축제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 남원전통의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행사장을 마련하여 그윽한 막걸리 한잔과 함께 신나는 공연도 함께 즐길 수 있게 구성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따스한 봄날 저녁 흥남리는 벚꽃과 아름다운 야경 그리고 흥겨운 노랫소리가 함께 어우러질 모습은 행사기간 남원을 찾는 상춘객들에게 봄날의 정취를 제대로 느끼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익산시, '문화도시 삼삼오오' 참가자 모집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2023 문화도시 삼삼오오'에 함께할 참가자를 2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시민들이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해보고 싶은 활동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문화도시 삼삼오오 주제는 '공원'과 '아파트'이다. 우리 주변의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 공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나 이웃과 소통하는 활기찬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활동 등을 이야기 나누며

실행해보고 싶은 활동을 제안하면 된다.

참가자격은 익산시민 또는 익산 거주 학생이나 직장인이면 누구나 5인 이상 7인 이하로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40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나 희망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는 희망연대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안역사박물관, 3~6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 3~6월 프로그램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한다. 올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지역의 공방이나 문화예술가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문화예술과 전통자원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핸들 바구니 만들기(2회 통합과정), 5월 31일에 힐링 센터피스 만들기, 6월 28일에 일상 속 보자기아트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오후 7시 진안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참여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진안군민 누구나 전화(430-8085)로 접수 가능하고, 프로그램당 선착순 12명을 접수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